

난치병 학생 치료비 한도 재검토되나

도교육청, 작년보다 '재적 기간 중 1500만원' 한도 적용 학부모 "지속 치료 위한 상한선 폐지·현실적 확대 절실" 전국 교육청 상한선·금액 차이... "효과 높일 기준 필요"

제주지역 난치병 학생을 위해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총 지원 금액의 상한선이 적용되면서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한선을 없애거나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의견인데, 제주를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청의 기준도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1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부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중에 암이나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 당뇨를 비롯해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다. 병원 진료비 중 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90%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주 외 지역 의료기관 진료 시에 발생한 항공료, 선박료, 숙박비 등 제재비(학생과 동반 보호자 1명 포함)와 화상 강의 수강료도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억9400여만원을 투입해 난치병 학생 394명을 지원했다. 올해도 오는 7월에 1차 신청을 받아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연 300만원 이내다.

지난해부터는 총 지원금액의 한도도 신설됐다. 도교육청은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재적 기간 중 총 지원금액'을 1500만원 이내로 정했다. 학생 1명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새롭게 둔 셈이다. 이전에는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최대 3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연간 최대 한도를 소진했을 경우 5년간만 지원받을 수 있게 달라진 것이다.

도교육청은 총 지원금액에 대한 한도를 두지 않을 경우 예산 부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약 없는 치료를 이어가는 난치병 학생의 부모들은 상한선 폐지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제18대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중인 '도민 소통 플랫폼'에도 이러한 요구가 제기됐다.

중학생 자녀가 난치병으로 치료 중이라고 밝힌 한 학부모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미 지원 한도가 거의 소진돼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며 "재적 기간 지원 상한이 정해져 있으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어느 순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제주 외에 자체 예산을 들여 난

치병 학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전국 교육청 사례를 살펴보면 '재적 기준' 한도 여부 등에 대해선 저마다 차이를 보인다.

본보가 서울과 경남, 전북, 울산, 강원 등 5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의 총 지원금액 한도를 두고 있는 곳은 2곳(경남, 울산)이었다. 단, 이 지역의 경우 금액 기준이 1인당 3000만원으로, 제주보다 2배 높았다. 서울(1인당 연간 350만원)과 전북(500만원)은 연간 한도 외에 별다른 기준을 두지 않았다. 나머지 강원은 3년간 지원 금액이 100만원으로,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난치병 치료비 상한선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면서 교육감직 인수위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사례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태영호 전 의원 또 "4·3 김일성 지시에 촉발"

어제 변론기일... 4·3유족회 "왜곡 발언 면죄부 주면 안돼"

제주4·3 관련 발언으로 1심으로부터 4·3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0만원 배상 명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제주지법 민사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15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 앞에 도착한 태 전 의원은 "4·3은 명백히 김일성과 박헌영 지시를 받은 남로당이 1950년 5·10선거를 반대하며 일으킨 무장세력 반란이며 무고한 도민이 희생된 것"이라며 "4·3이 공산 무장 폭도에 의한 폭동이라는 것과 김일성이 개입했다는 말이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라며 "4·3은 인식을 씌운 것이 아니라 인식을 씌운 것"이라며 "남로당 폭도와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를 분리해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전 국회의원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4·3희생자유족회는 재판부에 "4·3을 왜곡하는 발언에 면죄부를 주다면 우리의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온갖 혐오와 왜곡으로 만연해 우리 사회는 갈등과 반목이 난무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픔의 역사를 진정된 마음으로 보듬어 인간 존엄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법부로 정의롭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라며 "부디 판결이 자식, 폭도 가족이란 말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피눈물로 살아온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어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쯤에 열릴 예정이다.

박소정기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특별관리 기간 운영

체감온도 31℃ 이상서 2시간 이상 연속 작업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까지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은 체감온도 31℃ 이상 환경에서 2시간 이상 연속 작업하는 근로자다.

도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단계별 작업관리 기준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물과 그늘(바람), 휴식 제공을 비롯해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체계 구축 등이다.

또 제주도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공공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이밖에 냉각조끼와 생수 등 예방물품 지원과 근로자 대상 교육도 실시한다.

양재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

강실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사업장의 예방조치 이행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특별관리기간 동안 현장 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평화·인권 함께 배워요"

제주시교육청 '빛탐인클래스' 광주·제주서 평화·인권 캠프

제주와 광주, 두 지역 학생들이 '제주4·3'과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연결고리로 교류를 하고 있다. 올해로 5년째인 '빛탐인클래스'다.

15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빛탐인클래스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지역교류 사업이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제주 4·3 평화·인권교육과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2026 빛탐인클래스 평화·인권 제주캠프'가 열렸다. 제주와 광주 지역 초등학교 6학년 40명은 지난 11~12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제주4·3평화공원, 4·3 유적지 첫알오름을 찾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체험했다. 4·3을 소재로 한 영화 '한란'을 감상하고 4·3 이야기



제주와 광주 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 40명은 지난 11~12일 1박 2일간 일정으로 제주4·3평화공원, 4·3 유적지 첫알오름을 찾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체험했다.

를 특강으로 만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29일에는 광주에서 '평화·인권 광주캠프'가 개최됐다. 올해 빛탐인클래스에는 두 지역 학생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 3개교 10학급 233명, 광주 9개교 10학급 178명이다. 참여 학교는 제

주와 광주 1학급씩 결연을 맺어 온 라인 토론, 편지 교환, 엽서 만들기, 선물 나누기 등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제주와 광주 학생들이 제주4·3과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억하며 평화와 인권, 연대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평화와 인권을 위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2026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개최를 축하합니다

제주에서 수확한 레몬으로 만든

제주 레몬 100

100% Fresh Jeju Lemon

제주시농협 조합원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상큼한 제주 레몬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다른 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레몬 100%를 이용한 착즙액입니다.

제주 자연에서 자란 레몬 100% 그대로 담은 제주레몬100을 더 맛있게 즐기는 TIP!

- 레몬주스**: 제주레몬100을 물에 희석하면 상큼한 레몬주스!
- 레몬소주**: 제주레몬100을 소주에 타서 색다른 레몬소주맛을 느껴보세요!
- 레몬에이드**: 제주레몬100을 탄산음료 또는 탄산수와 함께 새콤달콤한 레몬에이드로!
- 레몬드레싱**: 제주레몬100을 샐러드에 곁들이면 산뜻한 레몬드레싱!

구입처_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729-1551), 노형점(750-6500), 오라점(747-6260) | 제주시농협 온라인쇼핑몰